

ESCO 시장 확대로 글로벌 불황을 이겨내자

글 / 편집부

사업을 영위하는 CEO들이 가지고 있는 큰 고민 중 하나는 “언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와 “이를 통해 최대한 이익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요즘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원가를 낮추고 온실가스저감을 통해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제5의 에너지’, 지속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이라 불리는 에너지절약사업 시장은 단기성 인기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에너지 절감기술 및 친환경제품, LED 조명기구 등의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중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전기자동차 관련 전력선통신(PLC) 모뎀개발 및 제조 판매, 스마트그리드 관련(EMS, NMS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의 영역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기업들은 이러한 사업 확장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도 전에 초기 단계에서 머무르기 십상이다. 기업가치는 단순히 신규사업 시작 단계부터 높아지지는 않는다. 실적으로 이어져야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다.

에너지절약이 제5의 에너지로 불리는 시대, ESCO 투자 사업은 1억원 투자 시 88toe의 에너지 절감이라는 놀라운 절약효과를 나타내며 국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감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ESCO 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바로 시장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ESCO 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에너지절약의 직간접적인 토양조성에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은 물론 ESCO 자체도 제삼 깎아먹기식의 과도한 내부경쟁보다는 업계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미래를 위한 자기성찰과 기술개발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지난 7월 지식경제부와 KOTRA는 국내 기업의 중국 에너지절감 시장 진출을 위해 9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중국 ESCO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19일에는 중국 광저우에서 광동성 에너지사업장을 대상으로 ESCO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해외 진출 설명회는 우리나라의 진보된 ESCO 기술을 거대한 에너지시장인 중국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토대가 되고 있다. 사실 최근 중국 정부가 정한 신흥 전략사업인 '에너지절감' 분야에 우리기업의 진출 방안이 기대되고 있는데 루자아(路加) 중-EU 환경보호 협회 이사는 중국은 산업구조 구도화, 12·5 규획 등으로 에너지 절감분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기업과 기술력을 차별화하는 한편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시장을 빠르게 공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언

급하기도 했다.

KOTRA에 따르면 중국의 에너지절약관련 시장 규모는 지난 1998년 ESCO사업 도입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분야 총투자 규모도 2400억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거대한 에너지소비 시장이며 이에 따라 ESCO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을 선도할만한 기업이 부족한 상황이며, 선점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술력이 뛰어난 우리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하에 그린빌딩, 난방개조, LED조명개조 등의 에너지절감 프로젝트가 속속 시작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 및 기업들과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해 신규 프로젝트에 진출을 시도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난 2010년 정부는 'ESCO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ESCO 산업을 국가 녹색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

다고 천명했다. 공공기관 ESCO 사업 의무화, 진단결과 ESCO 사업연계 의무화 등을 통한 시장창출과 정책자금 지원확대, 팩토링활성화, ESCO 민간펀드 조성 등을 통한 투자확대는 물론 전문 ESCO 제도 도입 및 성과보증제도 확산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발전방안이었다. 결과적으로 ESCO 시장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ESCO가 저금리의 정부지원금만 바라보며 사업한다는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과 기술력 부족과 경쟁력 부재 등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ESCO 사업, LED 사업은 하루아침에 불일 듯 일어나지 않는다. 기간 산업과도 같은 것이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협회 그리고 기업이 한 마음으로 시장의 성숙과 확장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중국을 넘어 세계 속 ESCO로 당당히 자리하게 될 것이다.

